

초등학교 비만아동의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

황 옥(동남초등학교)

박 은 숙(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)

주 은 정(우석대학교 식품영양·식품공학부)

최근 성장기 아동의 체중과다 및 비만의 발생이 증가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비만 아동의 지도 및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. 본 연구는 아동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비만아동 61명(남아 34명, 여아 24명)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.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0.03세로 남아 10.15세, 여아 9.89세였다. 본 연구에 사용한 비만도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1998년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를 이용하여 신장별 표준체중을 계산하였다. 대상자의 비만도, 체질량지수(BMI), 체지방량, 체지방율 및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율(WHR)은 124.08%, 23.01, 15.02kg, 31.89% 및 0.86이었다.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은 각각 109.77mmHg와 69.18mmHg이며, 공복시 혈당은 76.36mg%였다. 비만 아동의 출생시 체중은 3.37kg, 부모의 BMI는 각각 23.20과 22.66 이었으며, 형제수는 1.95명, 가족수는 4.02명, TV 시청시간은 2.43시간 이었다. 열량 섭취량은 1679kcal로 당질 : 단백질 : 지질의 섭취비율은 57.85 : 14.48 : 26.64 였으며, 칼슘, 철분 및 비타민 B₂의 섭취량이 권장량의 62.3%, 76.7%, 80.1%로 매우 낮았다. 비만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($p < 0.001$) 것은 체중($r = 0.628$), BMI($r = 0.892$), 체지방량($r = 0.777$), 체지방율($r = 0.721$), WHR($r = 0.545$), 열량섭취량($r = 0.512$) 및 당질섭취량($r = 0.471$)이며, 다음으로 상관관계가 높은($p < 0.01$) 것은 근육량($r = 0.430$), 지질섭취량($r = 0.428$), 인섭취량($r = 0.345$) 및 TV 시청시간($r = 0.333$)으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. 이외에도 칼륨섭취량($r = 0.299$), 단백질섭취량($r = 0.298$), 신장($r = 0.290$) 및 수축기혈압($r = 0.273$)은 양의 상관관계($p < 0.05$)를 나타내었으며, 출생시 체중은 음의 상관관계($r = -0.293$, $p < 0.05$)을 나타내었다. 특히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열량섭취량과 TV시청시간이 유의적($r^2 = 0.349$, $p < 0.01$)이었다. 그러나 남자 비만아의 경우는 칼륨섭취량, TV 시청시간 및 출생체중($r^2 = 0.661$, $p < 0.001$)이, 여자 비만아는 열량섭취량과 비타민 B₂섭취량($r^2 = 0.395$, $p < 0.01$)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다.